

기묘묘 암석들 수정병풍...대자연 앞에 닫히는 말문



무등산 대표 경승지인 입석대가 아름다운 절경을 뽐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무등산을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19 대표 경승지

광주 시내 한눈에 담은 '새인봉'
노을에 반짝이는 돌기둥 '서석대'
정유재란때 왜군 격파한 '적벽'
바위·푸른 숲·맑은 물 조화 일품

국립공원 무등산은 경치가 뛰어난 경승(景勝)지가 많은 산으로 꼽힌다. 무등산은 오르기도 힘들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산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경승지를 구경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무등산의 대표 경승지로는 서석대와 입석대, 새인봉, 규봉, 원효계곡, 용추계곡, 지공너덜, 덕산너덜 등이 있다. 전망을 즐기기에 중머리재와 장불재, 동화사터, 장원봉 등이 좋다. 무등산의 대표적 경승지를 소개한다.

▷새인봉=약사가 남쪽에 솟아있는 큰 바위 두 개가 바로 새인봉이다. 정상 높이는 608m. 정상의 모습이 입김의 육새 같다고 해 새인봉 또는 인괘봉으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새인

봉에 오르려면 약사사에서 다소 가파른 길을 오르는 것이 빠르다. 단거리로 큰 무리가 없는 등산코스다. 정상에선 광주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남동쪽의 감투바위와 선두암의 아름다운 절벽도 절경이다.

▷서석대=무등산의 대표 경승지다. 장불재를 지나 동북쪽 900m쯤 올라서면 거대한 바위병풍이 한눈에 들어온다. 유명한 서석대(1100m)의 수정병풍이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줄지어 있는 서석대는 저녁노을이 물들 때 햇살이 반사되면서 수정처럼 반짝거린다. 선조들은 이를 놓고 '서석의 수정병풍'이라는 애칭을 붙여줬다. 서석대의 바위병풍은 맑은 날이면 광주시내에서도 볼 수 있다. 5월 하순이면 연분홍 철쭉꽃이 서석대의 기암절벽 사이에 만개하면서 무등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기도 한다.

▷입석대=장불재에서 동쪽으로 200m 올라가면 정상 서쪽에 입석대(1017m)가 있다. 높이 10~16m의 돌기둥이 반달모양으로 둘러져 있는 석경은 다른 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경관이다. 돌기둥은 5~8면체의 각석이며, 하나의 암주(巖柱)나 3, 4단의 석주(石柱)로 구성돼 있다. 동쪽 바위에 '立石(입석)'이라는 글자가 음각돼 있다.

▷규봉=무등산 정상에서 동남쪽에 자리 잡은 총암괴석으로 이뤄진 규봉(950m)에 들어서면 화산 물염적벽과 동북수원지가 한눈에 들어오고, 청명한 날이면 구름 지리산, 순천조계산, 광양 백운산, 장흥 제암산, 영암 월출산을 볼 수도 있다. 규봉암의 뒤편에 솟아있는 총석은 한 폭의 한국화를 옮겨놓은 듯 멋진 자태를 뽐낸다.

▷지공너덜=장불재에서 규봉쪽으로 산길을 걷다가 지장암 터를 지나면 바위조각들이 폭 2km, 길이 4km 규모로 길게 뻗어있는데, 바로 지공너덜이다. 너덜은 풍화된 암석이 부서져 산비탈을 덮은 돌밭이다.

▷산 정상 삼봉=무등산 정상은 천왕봉과 지왕봉, 인왕봉 등 세 개의 봉우리로 이뤄져 있는데, 이를 삼봉이라고 부른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천왕봉으로 1187m다. 맑은 날에는

저 멀리 다도해도 눈에 들어온다.

▷의상봉=원효사에서 무등산 정상을 바라보면 그 아래 솟아있는 의상봉(548m)이 시야를 가린다. 의상봉은 정상 부근은 완만하지만 서쪽은 절벽으로 경관이 준수하다. 의상대사가 이곳에서 수도했다는 말이 전해온다.

▷운필봉=의상봉 오른쪽 아래 우뚝 솟은 봉우리가 운필봉(400m)이다. 이 봉우리의 꼭대기에는 천연굴이 있다. 이곳은 윤필 거사가 좌선수도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효 8경=원효사를 중심으로 무등산의 북쪽 경사진 면에 펼쳐지는 풍경은 빼놓을 수 없는 경승지다. 원효계곡 일대의 경관을 표현한 ▲무등명월(원효사에서 무등산 정상에 솟아오른 달을 바라보는 운치) ▲원효모종(저녁 어스름 사이로 들려오는 원효사의 종소리) ▲의상모우(해 저물녘 의상봉에 내리는 비의 너울) ▲서석귀운(서석대에 감겨드는 뭉게구름) ▲안양노닐(안양사의 오래된 부처님) ▲삼밭열적(삼밭실에 서려있는 총장공의 총질) ▲만치초적(늦게에서 들려오는 나무꾼들의 풀리 소리) ▲원효폭포(장쾌하게 쏟아지는 원효폭포의 물줄기) 등 원효 8경이 예부터 구전돼 내려오고 있다.

▷장원봉=자고개에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오르면 장원봉(386m)을 만날 수 있다. 과거 광주향교가 장원봉 아래 있었는데 호랑이 피해가 심해 지금의 남구 구동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장원봉이라는 이름은 광주에서 장원급제하는 인물이 많이 나와 지어졌다고 한다.

▷적벽=무등산에서 흘러내린 영선천과 백야산에서 발원한 청랑천이 합류한 동북천 종류 7km에 걸쳐 이뤄진 절경을 적벽이라고 한다. 적벽은 정유재란 때 의병들이 지형을 이용해 왜군들을 격파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물염적벽·물염정=물염적벽은 동북수원지의 망미적벽에서 창랑천 상류 쪽으로 3km지점에 있다. 오색바위가 병풍처럼 둘러 있는 맑은 물이 물염적벽이라고 하는데, 맑은 물과 흰 모래의 조화가 일품이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나와 무등산

신경현 (기아차 광주·전남본부 차장)

도심 곁에서 '나' 찾는 시간

본격 산행에 나선 지 5년째. 그동안 많은 산은 아니지만 전국의 이름있는 산은 대부분 오르내렸다. 하지만, 무등산처럼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도심 속 명산은 없는 듯하다. 무등산은 항상 어머니의 품처럼 넉넉하고 코스마다 공평함이 있는 산 중의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경현씨가 지난해 겨울 무등산 서석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등산이 지난 3월 4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이러한 넉넉하고도 공평한 명산의 품격 때문이었을 것이다. 특히 1000m가 넘는 고산에 주상절리대가 있는 무등산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귀한 특징을 가진 산이다. 최근에는 주상절리대의 가로 길이가 9m로 세계 최대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지질공원으로 추진중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는 다양한 등산 코스가 있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코스는 원효사~늦게삼거리~동화사터~중봉~장불재~입석대~승천암~서석대를 지나 옛길을 따라 원효계곡 시원지~물봉거리~주검동유적~제철유적지~공원사무소 돌아오는 원점회귀코스다. 쉬엄쉬엄 걸어도 5시간 정도면 된다. 산행 도중 중봉에서 바라보는 천왕봉과 서석대의 모습은 고산에서 볼 수 있는 장엄함과 묵묵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추천하고 싶은 절경 포인트 중 한 곳이다.

여기에 서석대를 향해 가는 산행은 광주 도심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산행의 묘미도 있다. 나는 가끔 무등산 등반 도중 광주시내 전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등산을 통해 정신적 고통이 치유됨을 느끼곤 한다.

또 요즘처럼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이면 지난해 겨울 산행 때 봤던 눈 내리는 무등산 서석대의 절경, 고산지대 관목 사이로 피어나는 눈꽃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을 수 있다. 특히 한겨울 서석대의 빙벽은 눈 조각 축제장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절경 중 절경이다.

이렇듯 무등산이 주는 모든 것을 머리와 눈, 가슴 등에 가득 담고 하산하면서 한 잔 걸치는 막걸리의 맛은 그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최상의 맛이 아닐까 싶다. 나는 또 무등산을 홀로 오른다. 다음주에도 또 무등산을 오를 것이다.

무등산 갤러리

김영화 작 '무등의 미소' (2009년)
캔버스에 오일(116.8 X 91cm)



"무등산은 화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발치서 바라볼 때 은유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달리 산 속에 들어서면 강한 정신력을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 무등산이 품고 있는 풍경을 바탕으로 광주 시민들의 삶 속 행복과 애착을 표현했다. 서석대와 입석대, 무등산 수박, 증심사, 철석동 고싸움 그리고 사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각각의 나무들은 무등이 품고 있는 세월 속 흐름을 이야기한 것이다."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몰완비)

구분	영업시간	성인(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5~7세)
평일	11:30~22:00	25,000원	12,000원	8,000원
토.일.공휴일	11:30~22:00	29,000원	18,000원	12,000원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YONAMJA 유스퀘어점

매콤한 오남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봉골레 Yonagole Half ₩10,800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herb crispy chicken steak Half ₩10,800

핫 스파이시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Half ₩10,800

허니고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